

# 전 문 가 見 解



黃宗煥

〈변리사 국제특허〉

## 中企人們 知財權 인식도 낫다

**中企人들 知財權인식도 높다**

겠다』는 자조적인 농담에서도 느낄 수 있다.  
국내 기업들은 이제라도 단순기술로 입에 의한 상품전략  
을 수정하고 근원적인 대책을 갈구해야 한다. 미국·일본  
기업들의 지재권보호전략이 심상치 않음을 확인할 수 있  
고 그들은 전세계의 지적재산권 관리를 통한 수익증대를  
노리고 있다.



孫讚鉉

〈대외경제政策研 위원〉

해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단기적으로 외국 知財權 권리자에 의한 우리 시장의 고  
란 가능성에 매우 큼으로 공정거래법, 대외무역법과 특별  
법 등의 보완을 통해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다.  
이와 함께 知財權 보호가 통상과제가 되도록 정책을  
원에서 보호해줘야 한다.

## 법제도 보완 피해 최소화해야



宋相現

〈서울大교수 법학〉

宋相現  
(서울大 교수 법학)

우리나라에 知的 所有權이란 단어가 처음 선보인 1985년만 해도 이를 이해하는 이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기업들은 담당부서를 창설해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여러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고, 절후도 침해행위 단속을 위해 노력하며 일반 국민의 의식도 현저히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애초 걱정했던 과중한 헌법과 중복되는 지급로열티 으로 인한 경제부담과 선진국 기술에 의 종속도 어려워졌다. 해석은 국의 오명을 벗기 위한 속적 노력만이 아니라 우리의 창작물을 침해하는 외국 사용자에 적극 대처해야겠다.

우리나라에 知的所有權이란 단기 처음 선보인 1985년만 해도 이를 이해하는 이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기업들은 담당부서를 창설해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여러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고, 정부도 침해행위 단속을 위해 노력하며 일반 국민의 의식도 현저히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 우리창작물 침해 적극 대처를